

# 국회법 개정안 ‘사망선고’… 쫓는 ‘버티기’

### 본회의 재의, 새누리 ‘표결 불참’ 정족수 미달로 부결 자동 폐기

### 쫓 거취 싸고 친박·비박 갈등 고조…野는 법안처리 협조 않기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에 부쳤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워런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 이날 의결 예정이었던 경제활성화법안 등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6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각각 물밑 회동을 갖고 조만간 있을 수 있는 의원총회에 대비하는 등 ‘세걸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친박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비공개회 회동을 갖고 일단 지역, 선수별로 준비해 둔 유 원내대표의 사퇴

촉구 성명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김태을 의원 주도로 의총 소집 요건인 ‘당 소속의원 10분의 1’(16명)의 2배에 달하는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내일(7일) 오전까지 유 원내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비박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전히 당내에는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며 “사실 지난해 의총에서 (당내 다수 의원인) 유 원내대표를 인정해줬던 것 아닌가. 무엇이 됐든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장 오는 8일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여당이 처리시한을 20일로 못박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정례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나갔으며 “유 원내대표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 재신임 의총은 소집 여부부터 논란거리여서 실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 의총을 통해 이 문제를 결론 내려 한다면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는 당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승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표결이 무산된 뒤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동물은 배신 안해 박대통령, 동물의 왕국 즐겨봐”

### 박영선 전 새정치 원내대표,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서 소개

‘배신의 정치’라는 언급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는 증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간 준비 중인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내용 중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1994년 인터뷰 내용을 미리 공개, 이 같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정계 입문(1998년) 전으로 은둔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시 나는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물었다. 그때 박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박 대통령은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고 떠올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서에서 “아버지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30여 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라며 “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썼다.

박 전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도 저서에 소개됐다. 박 전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점심 식사에서 그는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참여정부 때 재벌 지배구조를 다잡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며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탈당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저서에는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 외에도 박 전 원내대표가 20여 년의 기자생활과 10여 년 정치인 생활을 하며 만난 국내외 지도자들 14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희호 여사 내달 5~8일 항공편 방북

### 정부 “전폭적 지원” 승인 방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8일 북한을 방문한다.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CIO)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항공편 방문

을 제안했고 여사님이 이에 대해서도 승낙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쪽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쪽에서 비행기를 보내줄지, 여기 비행기를 사용할지는 아직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이 여사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희호 여사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당정, 사학연금도 손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사학연금도 변화하는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틀 내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를 이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므로 빨리 해야한다”면서 “사학 측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그 문제에) 담아야 여러 가지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예 든 정국회 때 마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간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설설 끊는 野 신당설... ‘與비박-野비노 연대설’까지

### 이상돈 “非朴·非盧연대설, 불가능하지는 않다”

### 박지원 “창당에 동조 않지만 새로운 방법 모색”

### 박주선 “이기는 야당 만들기 주저할 필요 없어”

야권의 신당 및 분당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의 비노 그룹의 분당에 이은 신당론에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연대한 제3지대 신당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여권내 비박과 야권 비노의 연대설과 관련해 “연대, 나아가 제3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야권 안팎에서는 중도 성향의 ‘제3의 길’ 모색이라는 주제가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박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지난해말 유 원내대표와 보수·진보의 진영논리 극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호남의 모 중진 의원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분열을 계기로 중도 성향의 신당 창당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호남과 영남 민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정배 신당론’도 초기의 ‘호남신당’에서 ‘전국신당’으로 의원을 확대하며 야권을 계속 강타하고 있다.

더욱이 전 의원은 최근 “합리적 보수와도 함께 할 수 있다”며 보복을 낫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 사이에선 ‘나가려면 나가라, 탈당하려면 해라’는 막말까지 나오는 게 당

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아직까지 창당에 앞장 서거나 동조하지 않지만 (신당파와) 많은 대화를 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여기에 박주선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에 나와 “진노 패권 정산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혁신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혁신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새정치연합이 국민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면 대안정당, 대체정당을 만드는 건 당연한 정치인의 책무”라며 ‘비노 연합신당설’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당내 비노계 의원들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 분들과 논의를 해 이기는 야당을 만드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 ① 신축 4층건물(총층 13개)
- ② 월세 인기좋은 /임대 걱정없음
- ③ 1층 점포
- ④ 2층~3층 원룸 10개
- ⑤ 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40만 매매가 7억 1천만

-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 (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목1개) 매매가1억1천
- ③ 북구 용봉동 (토90평,건1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원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135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북구 유산동 인보회관 상영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점포 88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원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5천500만

010-6832-9700

### 법원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1. 서구 금로동 7층동(7층)토180㎡, 건295㎡)감정가 6억6천-최저가 2억3천
2. 광안구 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당상가)
3. 서구 평동(토44.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서구 화정동(토150평, 건276평)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2. 담양 남면동(토1427평, 건1251평)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3. 서구 생촌동(토63평, 건148평)감정가 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 북구 운암동(토66평, 건193평)감정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2. 동구 대인동(토780.2㎡, 건1992.57㎡)감정가 24억7천-최저가 14억
3. 북구 오차동(토114평, 건190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4. 순천 (층건물)토205평, 건221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3억

공장/모텔/주유소

1. 광안구 장덕동(공장)토474㎡, 건478㎡)감정가 7억1천5백-최저가 7억1천5백
2. 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614평)감정가 41억-최저가 15억
3. 서구 농성동(주유소)토246평, 건273평)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5억7천
4. 광안구 생암동(속박시설)토154평, 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울실뿐!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1. 광안구 생암동(근린시설)토516평, 건919평) 1층, 사무실, 소매점 2층~3층)점포식당 4층, 주방, 속5층, 기계실 감정가 36억-최저가 36억
2. 북구 운암동 (근린시설)토 160평, 건283평) 개발기획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내 감정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7백
3. 광안구 산기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산기병원 북동측 인근, 해방대로변 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1억
4. 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평, 건602평)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좋은 (지하)사무실, 1층점포, 2층~4층)사무실 감정가24억7천-최저가14억
5. 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 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획추천투자적합 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010-6670-9800

###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 경매특수물건추천

- ① 남구 노대동 6층중 2층(근린상가)토31평, 건84㎡) 이마트입구, 도로접 교통조건 좋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 ② 서구 생촌동(원룸) (토208평, 건490평) 총4층 유초중고 부근 감정가 4억8천 → 최저가 4억8천
- ③ 서구 금호 7층중 3층(근린상가)토 55평, 건90㎡) 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2억3천

062-382-5500  
010-6832-9700